

# 2010 ICLEI 세계환경회의 Daily

ICLEI 세계환경회의 둘째 날 뉴스&하이라이트

2010년 10월 5-7일 대한민국 인천 개최

## 왜 ICLEI 세계환경회의는 고기없는 녹색식단을 준비했을까요?

우리가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 지구의 자원 소모량이 결정됩니다. 이제 큰 그림을 봐야 합니다. 그런 뜻에서 2010 ICLEI 세계환경회의는 회의 둘째 날의 식단을 채식으로 준비했습니다.



비(非)채식 식단은 채식 식단에 비해 2.9배의 물과, 2.5배의 에너지, 13배의 비료, 1.4배의 해충제를 사용하여 만들어 집니다. 특히, 물 소비는 비(非)채식 식단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의 45%를 차지해 환경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비(非)채식 식단이 어떻게 지구에 악영향을 끼치는지를 보여주는 두 가지 예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 우유와 육류를 생산하는 낙농업은 2007년 세계 온실가스 배출의 4% (19억6천9백만 톤)를 차지했습니다.
- 수산업 또한 해양 생태계를 파괴하여 환경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과도한 어획으로 수산 자원이 고갈되고, 의도하지 않은 어획물 (다른 생선들을 잡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잡힌 생선들)이 생겨 어종을 줄이며, 백만 톤 가량의 쓰레기를 만듭니다.

인구가 증가하고 사람들이 부유해질수록, 육류, 우유, 계란의 소비 또한 증가합니다. 2050년이 되면 2000년 대비 2배에 이를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채식주의자가 되는 것이 극단적인 것처럼 보여도, 고기, 유제품, 해산물을 줄이는데 의의가 있습니다.

녹색 행사에 대한 정보는 <http://incheon2010.iclei.org/greening>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 2010 ICLEI 세계환경회의의 소주제가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 생태효율: 생태를 고려한 지구자원의 효율 극대화  
<http://incheon2010.iclei.org/future-of-cities/eco-efficiency>
- 회복력: 환경변화에 따른 도시취약성에 대한 탄력적 대응  
<http://incheon2010.iclei.org/future-of-cities/resilience>
- 녹색경제: 경제구조 변화를 통한 녹색성장 실현  
<http://incheon2010.iclei.org/future-of-cities/green-economy>
- 시민행복: 시민이 행복한 도시를 향한 복지  
<http://incheon2010.iclei.org/future-of-cities/happiness>

오늘, 세션에서는 2010 ICLEI 세계환경회의의 소주제를 통해 지속가능성을 다뤘습니다.

세션을 통해 발표되고 공유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 시민행복에 기반을 둔 정책

과거, 사회의 번영은 국내총생산량 (GDP) 또는 물질적인 부와 연관되어 측정되곤 했습니다. “과도한 생산과 소비는 기후변화의 원인입니다,” 라고 Dorji Wangdi 부탄 왕국 노동인적자원부 장관은 말합니다.



2008년 7월, 부탄은 통치이념으로 국민총행복(Gross Domestic Happiness (GNH))을 선포했습니다. “발전의 궁극적인 목적은 국민들에서 행복을 주는 것입니다.”라고 장관은 지적했습니다. 국민총행복의 4가지 기본 이념은 평등한 발전, 문화 부흥, 자연 보호, 선량한 거버넌스 공약이며, 부탄의 모든 정책에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친환경 빌딩 자재는 15% 세제 혜택을 받으며 인스턴트 식품에는 100%의 세금이 붙습니다. “부탄에는 껌, 환타, KFC 가 없습니다.”

[www.grossnationalhappiness.com](http://www.grossnationalhappiness.com) 에서 더 많은 정보를 보실 수 있습니다.

## 경제와 생태

생태효율성은 경제와 생태를 아우르는 개념입니다. 지구가 수용할 수 있는 인류의 삶과 소비의 양은 한계치를 갖고 있습니다. 이를 수용력(carrying capacity)이라 하며 인간 소비와 생태계의 재생산물 간의 균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나온 메시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론적으로 생태효율을 이해한다고 해서 실생활에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세상은 생태효율이 아닌 시장효율에 따라 움직입니다. 대한민국 창원은 자전거 시스템을 설치해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공해가 줄어들고, 도로에 자동차가 줄어들고, 지역의 자전거 제작 산업이 활성화되고, 사람들은 건강을 위해 자전거를 타고 다니게 되었습니다.

창원에 대한 ICLEI의 사례연구를 [www.iclei.org/casestudies](http://www.iclei.org/casestudies)에서 살펴보세요.

## 도시 환경의 주요 요소인 회복력

“기후변화 적응은 회복력에서 나옵니다. 왜 중요할까요? 지역공동체가 스스로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Andreas Rechkemmer 스위스 다보스 글로벌 위험 포럼 선임과학 정책 최고 자문관은 말했습니다.

또한, 재해는 소외 계층에게 피해를 주기 때문에 재건을 위한 자원을 찾는 일이 중요하며, 북반구와 남반구의 현격한 격차와 같은 기후 정의 문제도 여기서 발생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지속가능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사회의 취약성과 직면하는 위험 등에 비례해 회복력의 수준을 향상시켜야 합니다. 기후 변화의 영향은 이미 큰 위험들을 내포하고 있고 대부분은 예측 불가능하며 도시 환경의 가장 취약한 부분을 노출시킨다는 것을 오늘 세션을 통해 다시 한 번 확인했습니다.

ICLEI의 2011 회복력있는 도시 총회에서 세계의 회복력있는 공동체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2010년 총회의 내용은 <http://resilient-cities.iclei.org/bonn2010> 에서 확인하세요.

## 녹색 경제를 위한 구매

친환경 공공 소비, '녹색 조달 (ecoprocurement)'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Wolfgang Teubner ICLEI 유럽 사무소 상무이사는 지역 공무원들이 친환경 제품의 가치 수명 주기(life cycle value)의 중요성을 간과하고 더 값싼 물건을 사려고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살펴본 바로는 녹색 경제 친환경 구매를 어렵게 하는 많은 요인이 있는데 정책 지원 부족, 녹색 구매를 값싼 물건으로 보는 대중의 시선, 지속가능성에 대한 전문성 결여, 교육, 실질적 도구, 정보의 부족 등이 그것입니다.

ICLEI의 녹색 구매 프로그램의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www.smart-spp.eu](http://www.smart-spp.eu)

## A planet of cities?

### - arirang TV 와 함께한 2010 ICLEI 세계환경회의의 TV 토론

메가시티들 중에서는 UN 회원국의 한 국가보다 많은 인구가 사는 곳도 있습니다. 우리는 "도시 세계(urban world)로 가고 있는 것일까요? 범세계적 거버넌스에서 앞으로 도시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누가 도시의 인프라와 사업 활동을 지휘하게 될까요?

#### TV 토론 방송 시간 안내

- 2010년 10월 10일 12pm GMT/UTC
- 2010년 10월 11일 12am GMT/UTC
- 2010년 10월 11 6 am GMT/UTC



**“도시를 지도상의 구역에 따라 정의해 왔지만 도시화 과정을 통해 지구는 서로 연결되고 있습니다.”**

Jeb Brugmann, ICLEI 창립자

**세계화로 인해 “시민을 투자 대상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도시에서 감정은 왜곡되기 시작했습니다. 도시는 주식 시장이나 투자 장소로 변하고 있습니다.”**

David Cadman, ICLEI 회장

**우리의 미래 환경에 영향을 주는 결정을 할 때, “시장들은 용기를 가지고 결정해야 합니다.”**

정래권, UNESCAP 환경개발국장

**“지난해 코펜하겐에서 열린 UN 기후 회의에서 흥미로웠던 것은 유권자의 힘이었습니다. 지역 공동체의 사람들은 중앙정부가 만들고자 하는 계획에 자신들이 참여하고자 했습니다.”**

Valerie Brown, 미국 캘리포니아 소노마 카운티 위원회 감독관

Media partner

Korea's Global TV  
**arirang**

Endorsing partners

